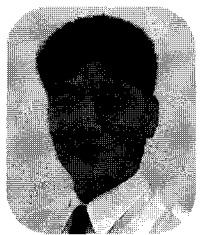




# 12월 지육시세는 2,350원/kg 예상

- 출하두수는 감소세로 반전, 돼지가격 하향추세는 일단락 지어진 듯
- 수출부위 수출활성화로 재고증가분이 감소되어야 가격 상승할 듯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마을  
모돈/비육계열팀

2003년 11월 1, 2주차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비육돈 출하두수는 66,519두로서 전년동기간의 두수대비 2.27% 순감소를 기록하여 당초 전망한 전년 대비 3~5%의 감소 예상과는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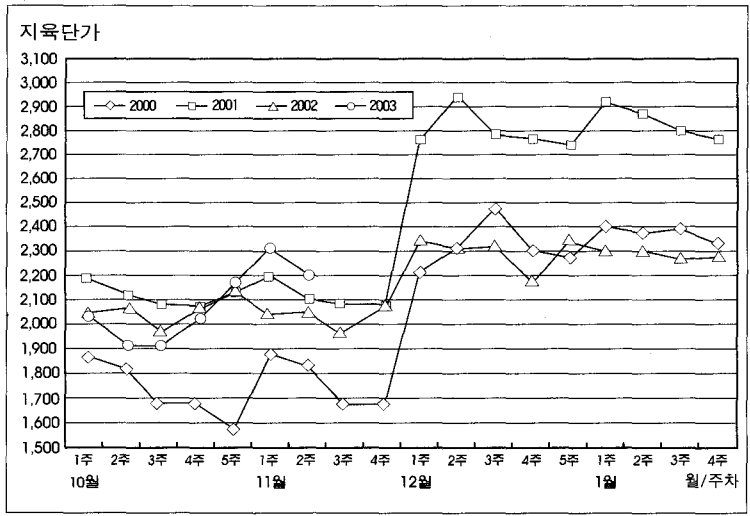
10월 전국 주간 평균 출하두수가 33,604두를 나타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11월은 3월과 4월에 발생한 돈열과 그 이후 백신 문제 등으로 출하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에 비교해 볼 때 11월 1, 2주차에 전국 출하두수는 33,259두로서 1.02%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시장에 풍문으로 떠돌던 돈열 백신의 피해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5월 중순 이후 출생한 자돈의 사고가 증가하여 그 때에 태어난 자돈의 출하시기는 금년 11월 중순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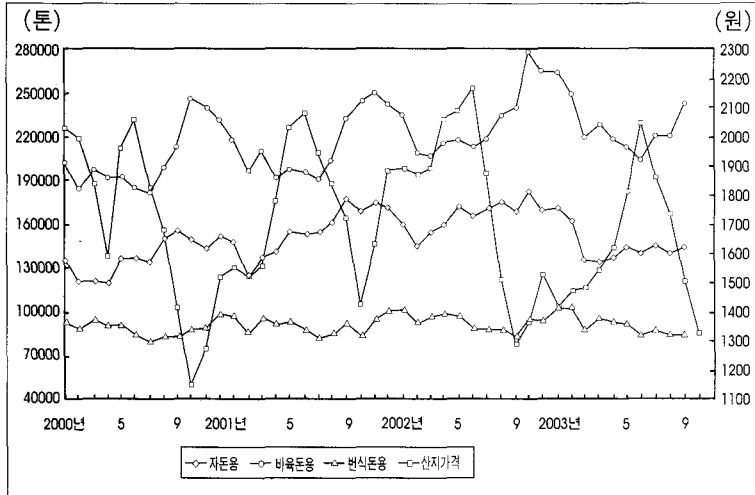
양돈의 특성상 번식에서 발생한 문제가 비육돈 출하량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최소 6개월, 길게는 12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의 전체 출하두수가 전년 동기 대비하여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예상하기는 3~5%의 출하량 감소가 보일 것이다.

이러한 출하량의 감소가 도매시장의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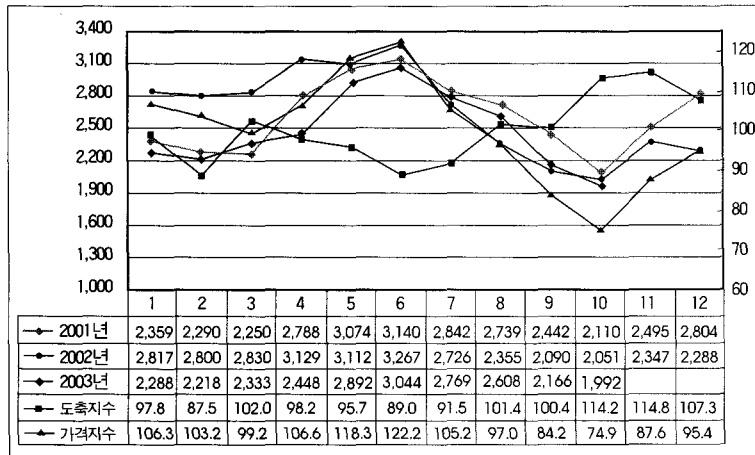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4개년간 전국 11개 주요 도매시장의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림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 생산량의 변화와 돈가동향



〈그림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지육가격의 인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이 증가되어야 하나 개인 부채 증가와 그것으로 인한 극심한 소비시장의 침체로 말미암아 돼지가격의 상승을 선부르게 예상키 어려운 시점이다.

10월을 고비로 출하두수의 증가추세가 감소세로 반전하고 돼지가격의 하향추세는 일단락 지어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나 도매시장 가격의 급상승은 어려워 보인다.

자돈 및 비육돈사료 생산량의 증가 추세가 8월보다 5~10%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 예

년 평균이었으나 오히려 약간 줄어드는 것으로 볼 때 출하량의 감소추세는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가격의 상승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극심한 소비침체와 사실상 상 돼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부위의 수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돈열의 발생으로 상당기간 수출지연이 불가피하고 수출부위의 주 소비시장인 2차 육가공 업체도 후지 등의 부분육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현실에서 1차 육가공업체도 늘어난 수출부위의 재고처리가 어려워 출하두수 감소와 소비증가로 인한 돼지 가격의 회복을 예상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도 금년 9월까지 돈육 수입중 삼겹살 부위가 3만5천톤을 넘어서고 시장에서는 국내산 삼겹도 재고가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시장의 소비 회복이 향후 돈가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수출부위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선행되어 재고증가분이 감소되어야 국내 돼지가격이 상승할 여건을 갖출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2003년 12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비육돈 지육단가는 11월 보다는 약간 상승한 2,350원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